더는 기회가 없다

평 양 출 판 사
주체101(2012)년

세치 혀를 잘못 놀려 긴 목이 날아난다는 격언을 새삼스레 떠올려보게 하는 망언이 리명박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지난 1월 2일 리명박역도는 이른바 《신년국정특별연설》이라는것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가관이다. 여기서 역도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정세에서 큰 변화가 예고》된다느니, 《기회의 창을 열어놓았다.》느니 뭐니 하면서 북이 《진정성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함께 열어나갈수 있을것이라고 주제넘은 망발을 늘어놓았다.

그런가 하면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떠들며 북의 《도발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할것》이라는 독기어린 폭언도 내뱉았다.

뿐만아니라 북이 《핵관련활동을 중

지》하면 6자회담을 통해 북의 《안보우려》를 해소하고 그 무슨 《지원》을 제공할수 있다는 희떠운 소리도 해댔다.

리명박역도의 《연설》은 민족의 대국상에 저지른 반인륜적이며 반민족적인 대죄악을 가리우기 위한 파렴치한 궤변이고 동족대결흉심을 다시한번 드러낸 또 하나의 망발이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속에서는 리명박역도의 《신년국정특별연설》이라는것을 가리켜 《남북관계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고도 정신을 못 차린 처사》, 《파탄된 대북강경책을 고수하려는 기도》로 락인하고있으며 역도의 망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북남관계를 전면파탄시킨 반민족, 반통일분자인 리명박이 도발적망발을 또다

시 늘어놓은 이상 그 궤변의 진의도와 부당성을 까밝히지 않을수 없다.

진짜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신년국정특별연설》이라는데서 리명박역도는 그 무슨 《한반도정세와 동북아시아정세에서 큰 변화가 예고》된다고 하면서 그 누구의 《변화》에 대해 지껄여댔다. 이는 초보적인 정세흐름도 관망할줄 모르는 정치문맹자의 가련한 추태이며 실현불가능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흡수통일》의 헛된 망상에서 깨여나지 못한 몽유병자의 가소로운 넉두리가 아닐수 없다.

지금 북의 천만군민은 민족의 대국상

을 당한 크나큰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발걸음도 드높이 새해의 대진군길에 용약 떨쳐나섰다. 새로운 신심드높이 부강조국건설의 대전성기를 펼쳐나가기 위한 장엄한 대진군에 떨쳐나선 공화국의 현실에 세계는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지난해에 세계는 령도자와 인민의 고결한 의리,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북의 사회주의제도의 불패성과 공고성을 현실로 목격하였다.

그런데 유독 리명박역도만이 이 시대적흐름을 보지 못하고 북에서의 그 무슨 《변화》에 대해 떠들어댔으니 이야말로 가긍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리명박역도가 그 무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정세에서 큰 변화가 예고》된다고 떠벌인것은 민족의 대국상이후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욱 과시하고있는 북의 격동적인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어리석은 넉두리에 불과하다.

역적패당이 떠벌인 횡설수설은 정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며 더구나 있지도 않는 허황한 《급변사태》에만 환장한 나머지 정세판단능력마저 상실한 저들의 가련한 몰골만을 보여줄뿐이다.

북은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리명박은 이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오늘날 굳이 조선반도에서 변화가 예고된다면 그것은 리명박역적패당의 완전파멸과 보수정권의 붕괴이다. 이것이 바

로 조선반도에서 새롭게 일어날 큰 변화인것이다.

리명박역적패당은 더더욱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에 대하여 시기질투할것이 아니라 제 발밑에서 벌어지는 《급변사태》에 대해서나 걱정해야 할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리명박역도의 반인민적인 경제정책과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에 환멸을 느낀 주민들의 저주와 분노의 함성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속에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태동하고있다.

단편적으로 《747공약》의 파산이 바로 그것을 확증해준다.

《747공약》이라고 하면 역도가 집권을 위하여 내놓았던 기본공약 일명 《기둥정책》이라고 할수 있다.

이미 《747공약》은 《칠(7)수 있는 사(4)기는 다 칠(7) 공약》, 《447공약》(실업자 400만명, 《국가채무》 400조원, 개인빚 700조원) 등으로 민심의 조소와 버림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더 붙을 오명이 없을줄 알았던 이 《공약》이 새해에 들어와서 저주의 대명사로 또다시 규탄받고있다.

올해 1월 9일 남조선의 《한겨레》신문은 《장미빛 공약에서 저주의 수자로 변신한 <747>》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리명박정부 경제<정책>의 상징 <747>이 올해 <한국>경제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저주의 수자>로 바뀌였다.》고 하면서 《헛된 공약의 상징처럼 굳어진 <747>은 한발 더 나아가 <한국>경제가 반드시 피해야 할 수자의 조합으로 전

락했다.》고 전하였다.

계속하여 글은 《유로사용국 국채리자률 7%》, 《물가상승률 4%》, 《청년실업률 7%》를 거들면서 《747공약》에 저주의 딱지를 차곡차곡 붙여놓았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전개하면 여기서 첫 수자 《7》은 세계경제위기를 촉발한 유럽국가들의 국채리자률 7%를 일컫는 말로서 올해에 반드시 피해야 하는 위험한 수자이라는것이다. 그것은 국채리자률이 7%를 넘었던 뽀르뚜갈, 그리스, 아일랜드 등이 구제금융을 신청한 경험때문이다.

가운데 수자 《4》는 물가상승률 4%를 뜻한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4%선을 넘어설 경우 당국에 대한 서민들의 분노는 폭발림계점에 이를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한다.

마지막 저주의 수자 《7》은 청년실업률 7%를 뜻한다.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사정이 날로 악화되고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년실업률은 올해 더 늘어날 전망이며 취업을 했지만 전직을 희망하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한 취업단념자까지 포함할 경우 청년실업률은 22%에 이른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까지 나와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민심의 한결같은 버림과 저주를 받고있는 《747공약》이 이제는 역도의 집권기반인 여당내에서까지 공식 페기선언될 처지에 놓여있다는것이다.

《련합뉴스》(2012년 1월 5일)는 이와 관련하여 《당장 정책측면에서 현 정

부의 대표공약이자 성장주의정책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당내 쇄신파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747공약>이 공식 페기선언될 가능성이 높다. 실지 김종인 비대위원은 그간 언론인터뷰를 통해 <747공약은 허구로, 이미 실현불가능한 목표로 판명난것>이라고 주장해왔다.》라고 언급하였다.

《747공약》의 파산, 이것은 이른바 《경제대통령》이라고 자처하던 리명박의 경제《정책》에 대한 파산선고인 동시에 완전파멸을 의미하는것이다.

남조선경제의 파산과 민생고는 현 리명박보수패당의 북남협력차단책동과도 이어져있어 이에 대한 민심의 분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만도 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

결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협력사업들은 모조리 중단되고 남조선민간기업들은 무더기로 파산되거나 페업의 위기에 처했으며 협력사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수많은 남조선주민들이 생사기로에 놓이게 되였다.

남조선 인터네트언론들인 《머니투데이》, 《통일뉴스》 등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남북경협효과분석 및 경협정상화정책토론회》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5.24조치》이후 도산위기에 몰린 남북경협사업관계자들이 통일부에 대한 불만을 한꺼번에 터뜨린 자리였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였다. 그것은 리명박패당의 《5.24조치》이후 1년반동안 개성공단사업축소, 금강산 및 개

성관광중단, 남북교역과 임가공중단 등으로 남측이 입은 직접적손실만도 27억 5천만US$, 부가가치효과 등 간접손실은 74억 8천만US$에 달한다는 사실이 뚜렷이 증명해준다.

한마디로 역적패당이 취한 《5.24조치》는 북이 아니라 남측 기업에게 벌을 주는 자해적조치로 되였다.

오죽하였으면 남조선의 교수들이 올해의 4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그릇된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을 선정하였겠는가.

원래 《파사현정》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부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생각을 버리고 옳바른 도리를 따른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여기에는 특히 거짓과 탐욕, 불의와 부정이 판치는 세상을 바

로잡겠다는 강한 실천의지가 반영되여있다고 한다. 바로 교수들은 《파사현정》을 올해의 4자성어로 정함으로써 올해에 치르어지는 선거들이 온갖 사악한 무리를 몰아내고 옳은것을 바로세우는 선거로 되기 바라는 자기들의 희망을 담았던것이다.

결국 이것은 남조선의 민심이 집권 4년간 역도패당이 저지른 반인민적악정에 침을 뱉았고 더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있으며 《정권》교체를 목마르게 갈망하고있다는것을 명백하게 시사해주고있다.

더우기 주목되는것은 남조선사회에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정치적변화의 움직임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있는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26일 서울시장선거에서 시민사회운동가인 박원순 무소속후보의 서울시장당선과 안철수지지세력의 등장 그리고 야당세력들의 련이은 통합과정 등 현 《정치》에 불만을 느끼고 진보적이며 새로운것을 지향하는 사회적 변화들이 련이어 일어난것은 그 대표적 실례로 된다. 이외에도 역도의 형 리상득의 보좌관금품수수사건, 역도의 처사촌부정부패사건, 전 국무총리실 차장 박영준부정부패사건들을 포함하여 지난해에 터지기 시작한 리명박역도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큼직큼직한 부정부패사건들이 련이어 곪아터지고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집권여당에서의 내부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속에 돈봉투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추문들이 련이어 터지고

해체위기론까지 거론되는 등 새라새로운 변화들이 남조선 각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얼마전에는 집권여당의 쇄신을 주도하고있다는 비상대책위원회패들이 시대의 흐름에 편승한다고 하면서 《당》의 정강, 정책에서 《보수》라는 표현을 삭제하겠다고 들고나와 보수세력내부가 법석끓고있는 형편이다.

현재 집권여당의 정강, 정책에는 《지난 60년동안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발전을 주도해온 발전적보수》정당으로 명시되여있다. 이러한 정강, 정책에서 《보수》라는 표현을 삭제한다는것은 보수우익정당의 성격과 뿌리를 전면부정하는것으로서 사실상 간단한 문제라고 볼수 없는것이다.

때문에 최근 역적패당들은 한켠에서는 《<보수>표현을 삭제하면 당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된다.》, 《당의 존재가치가 없어진다.》고 하면서 《탈당도 불사하겠다.》고 고아대고있으며 다른 한켠에서는 집권여당을 《민주통합당의 2중대로 만들자는것》, 《보수를 죽이려는 기도》라고 하면서 아우성치고있다. 이것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리명박보수집권세력의 가련한 처지를 신랄하게 보여주고있다.

새해에 들어와 진행된 리명박에 대한 지지률 분석결과 지난해 10월경에 그나마 30%계선에 머무르던 역도의 지지률은 20%계선에서 겨우 지탱되고 반면에 역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49.1%로서 응답자의 절반이 현집권자를 랭대하

고있는것으로 평가되였다.

이것은 정치문맹자, 반민족, 반통일분자로서의 리명박역도에 대한 응당한 판결이 아닐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의 그 무슨 《변화》타령을 념불처럼 외워대는것은 허황하기 짝이 없는 《급변사태》망상에 매달린 리명박과 같은 정신병자만이 떠벌일수 있는 망발이고 궤변인것이다.

굳이 조선반도정세의 변화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심의 단호한 징벌을 받고 머지않아 모래성처럼 붕괴되고야말 리명박《정권》에서의 《급변사태》이다.

이 모든것은 진짜 변화는 바로 남조선에서 오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진정성》타령의 진의

리명박역도는 이번 《신년국정특별연설》이라는데서 《북이 진정성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수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진정성》타령을 들고나왔다.

역도가 새해벽두부터 불어댄 《진정성》이니, 《평화와 안정》이니 뭐니 하는 망발에 남조선 각계에서 도대체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난과 야유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온것은 당연한 일이다.

원래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 거짓없고 참된 정과 실지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진정성이란 표현을 불의와 거짓, 모략과 권모술수에 이골이 난 리명박역적패당과 같은자들이 입에 올린다는것자체가 순결한 조선말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데 리명박역도는 집권 첫날부터 그 누구의 《진정성》을 북남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줄곧 내세워왔다. 다시말하면 《진정성》간판을 북남관계파탄의 주되는 수단으로 써먹어왔던것이다.

지난해 북은 년초부터 민족의 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성의있는 대화를 진행할것을 련속 제의하였다.

북은 지난해 1월 1일에 발표한 공동사설에서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며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대

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한데 이어 1월 5일에는 북남사이의 무조건적이고 조속한 회담개최를 강력히 촉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을 내보내였다. 북은 성명에서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누구와도 만나 북남관계개선문제들을 폭넓고 허심탄회하게 협의, 해결해나갈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그리고 1월 8일 북남당국사이의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며 중단된 적십자회담과 금강산관광재개회담, 개성공업지구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할것을 공식 제의하였다.

뿐만아니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선의의 조치로서 페쇄되였던 판문점적십자련락통로를 다시 열고 개성공업지구 북남

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동결조치를 해제하였으며 여러 갈래의 북남회담들의 의제와 날자, 장소 등을 밝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적십자회중앙위원회,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통지문을 남측의 해당 기관들에 보내였다.

하지만 리명박역도는 북의 이러한 적극적인 제안과 성의있는 노력, 실천적인 조치들을 무작정 외면해버리고말았다.

역적패당은 온 겨레와 내외의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킨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에서 천명된 중대제안에 대해 《진정성》이 담기지 않았다고 외면하고 그 실현을 위한 성의있는 대화제의를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하였으며 모처럼 열린 북남군사예비

회담도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렬시켰다.

사실 지난해 북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마침내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이 열렸을 때 온 겨레는 물론 전세계가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계기로 될것을 간절히 기대하였었다.

그런데 리명박패당은 어떻게 하였는가.

북남관계파탄의 주되는 수단으로 써먹군 하던 《진정성》간판을 또다시 들고나온 리명박패당은 예비회담에 나온 북측성원들에게 그 무슨 《진정성》을 보이라고 삿대질을 하며 《사과》니, 《책임적인 조치》니 하고 불손하게 놀아대다못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무

례한짓까지 서슴지 않았다. 하여 본회담에 넘어가지도 못한채 예비회담단계에서 결렬되고말았다.

리명박보수패당은 그러고도 북의 적극적인 대화노력을 《근본적변화가 아닌 전술적변화》라고 모독하고 《진정성이 안 보인다.》고 걸고들면서 파렴치하게도 《천안》호사건과 연평도문제를 조건부로 내세우며 대화를 정면으로 거부하였다.

지어 《흔들리지 않는 대북정책》만이 그 누구를 《변화》시킬수 있다느니 뭐니 하는 고약한 수작들만 늘어놓으면서 반통일적인 《대북정책》실행에 더욱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결국 북남당국회담의 급과 시일, 장소를 협의하기 위한 국장급실무접촉을 진

행할데 대한 공화국의 제의와 북의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사이의 의원접촉과 협상, 중단된 북남적십자회담 및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회담과 개성공업지구 실무회담을 개최할데 대한 북의 제의들도 역시 《진정성》이라는 장애에 부딪쳐 실현될수 없었다.

게다가 2월 28일부터는 미국과 한짝이 되여 대규모북침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각종 군사적도발로 북의 대화제의에 대답해나섰다. 리명박역적패당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지난해에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사라지고 북남사이에는 년초부터 년말까지 대결과 긴장격화의 기운이 계속 떠돌게 되였던것이다.

당시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자주평화

통일위원장이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고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인데 군사훈련을 한다고 해결될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이 대화하자고 제의하는것에 대해 진정성을 운운하며 대화를 거부하는것을 보면서 한반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대화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판인데 한미군사훈련을 하겠다는것은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폭로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새해벽두부터 떠들어댄 리명박역도의 《진정성》타령은 집권후 전기간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고 정세를 극단에로 치닫게 한 저들의 책임을 어떻게 하나 회피해보려는 교활한 권모술수인것이다.

바로 여기에 역도가 떠벌인 《진정성》

타령의 진의가 있다.

하기에 남조선의 《통일뉴스》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또 진정성? 차라리 화끈하게 조건없는 대북대화를 제안하라》라는 글에서 리명박역도의 이른바 《신년국정특별연설》자세를 너무나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전형적으로 나약한자의 자신없는 모습이라고 비평하고 남측이 진정으로 북측과 대화를 원한다면 지난해 북이 한것처럼 조건없는 대북대화를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입버릇처럼 외워대는 역도의 《진정성》타령에 환멸을 느낀 민심의 목소리라 할수 있다.

민족의 대국상에 온 겨레가 피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고 세계가 슬픔을 함께 나누고있을 때 동족에게 총부리를 내대

고 칼부림을 하면서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불망나니짓을 감행한 천하야만의 무리들이 그 무슨 《진정성》에 대해 운운하고 《평화와 안정》, 《협력과 대화》에 대해 떠드는것이야말로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짓이 아닐수 없다.

묻건대 동족의 아픈 상처에 칼질하고 조문탄압에 열을 올린 이것이 과연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있는 태도》인가.

만일 리명박에게 북남관계개선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덜이 날대로 난 《진정성》이라는 두루마기로 저들의 불순한 정체를 감싸면서 딴전을 부리지 말고 실지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했을것이다.

지난 1월초에 민주통합당의 한 위원이

남조선통일부의 2012년 업무보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진정성을 보여주는것이 관건》이라며 《북측에 비핵화와 천안함, 연평도<사과>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애용했던 진정성이 이제는 우리 정부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온셈이다. 실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현 정부가 북측과 고위급대화를 통해 포괄적의제를 다룰 진정성이 있는지 시험대에 오른것이다.》라고 한것은 바로 리명박보수패당의 《진정성》타령에 대한 질타라고 할수 있다.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곧이듣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제 더는 리명박역적의 《진정성》타령에 귀기울일 사람은 없다.

리명박역적패당은 들을수록 신물이

나는 《진정성》타령과 같은 허튼 말장난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인간의 진정에 칼질하고 동족의 진심을 모독한 저들이 저지른 반민족적죄악부터 겨레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것이다.

불을 즐기는자들이 갈 길

리명박역도가 《진정성》타령에 이어 그 누구의 《도발가능성》에 대해 떠들며 《강력한 대응》을 선동한것은 또 하나의 간과할수 없는 망발이다. 이것은 북남관계파괴자들의 마지막비명이고 북침전쟁에 환장한자들의 분별없는 호전적광기의 발로가 아닐수 없다.

역도가 《안보태세》가 어떻소, 그 누

구의 《도발》이 어떻소 하고 귀아프게 떠들어댔지만 실지적으로 항시적인 침략위협을 받고있는것이 북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부정할수 없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해마다 미국과 작당하여 대규모적인 북침전쟁연습들을 정기적으로 벌리고있다.

지난해에도 리명박역적패당은 미국과 합동하여 무분별한 대결과 전쟁책동에 매여달림으로써 북남사이에 엄중한 군사적충돌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히 위태롭게 하는 엄중한 도발을 감행하였다.

리명박패당은 1월초 그 누구의 《도발》이라는 미명하에 비상전투배치훈련과 공격용직승기들을 동원하여 공화국

을 겨냥한 사격연습을 벌려놓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한해동안 화약내 풍기는 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였다.

군부깡패들은 2월말부터 저들의 무력 수십만명을 동원하고 방대한 미제침략군과 미항공모함을 포함한 최신전쟁장비들을 끌어들여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으며 5월에는 괴뢰륙, 해, 공군, 해병대의 합동상륙훈련과 미제침략군과의 련합편대에 의한 공중전연습도 벌려놓았다.

5월말부터 6월초사이에는 《태극》훈련을 벌려놓고 미제침략군과 괴뢰군기계화보병부대들사이의 교전연습을 하였으며 8월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하고 뒤이어 9월에는 미국남조선련합실탄사격훈련, 해병대련합

훈련, 미군급유기에 의한 전투기공중급유훈련, 대잠수함훈련, 분계선지역에서의 야외기동훈련 등 북침을 가상한 전쟁연습들을 련이어 벌려놓았다.

11월에는 연평도와 백령도일대에서 괴뢰합동참모본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등의 참가하에 대규모적인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함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위협하였다.

묵과할수 없는것은 리명박역도가 북에 도발을 걸었다가 되게 얻어맞은 연평도포격사건에 앙심을 품고 《천추의 한이 된다.》느니, 《울화통이 터진다.》느니 하고 광기를 부리며 북침도발을 앞장에서 선동한것이다. 6.15공동선언발표기념일에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라는

것을 조작하고 《철저한 응징》을 력설하는 《축사》까지 보냈으며 직접 괴뢰군부대들을 찾아다니며 반공화국적대감과 군사적대결을 고취하는 놀음을 누구보다 악랄하게 벌린자들이 바로 리명박역적패당이다.

역적패당이 위험한 불장난질을 끊임없이 감행한 결과 북남사이에는 항시적인 대결상태가 지속되였고 결국 북남관계는 더더욱 최악의 상태로 곤두박질하였던것이다.

보다 엄중한것은 리명박군부패당이 지난해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감히 모독하는 전례없는 특대형도발사건들을 련이어 일으킨것이다.

특히 리명박역적패당은 민족의 대국상을 알리는 공화국의 중대보도가 나가

기 바쁘게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해외대표부들까지 비상근무태세로 이전시키면서 분주탕을 피웠다.

륙, 해, 공군부대들에는 경계비상과 전투비상을 하달하고 지상, 해상, 공중에서 전쟁전야의 충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30여개의 우익보수반동단체들을 전연에 내몰아 여러차에 걸쳐 감히 북의 최고존엄을 헐뜯고 소요를 선동하는 내용의 반공화국삐라까지 살포하는 광기를 부리였다.

리명박역도의 지시에 따라 군부호전광들은 19일 낮 12시 10분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긴급조치반을 구성하고 12시 20분에는 초기대응반을 움직였으며 12시 30분부터는 전군에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하여 전쟁대비태세에 들어가게 하였다.

미군에는 《U－2》고공정찰기와 《KH－11》첩보위성의 공화국에 대한 정찰회수를 대폭 늘이고 정보감시태세(워치콘)와 전쟁돌입태세(데프콘)의 단계를 올려달라고 구걸청탁하였다.

리명박역적패당의 요구에 따라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와 미태평양군사령부도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한 련동체계에 들어갔다.

괴뢰경찰도 19일 낮 12시 30분부터 《갑호비상경계령》을 내렸다. 지휘관과 참모들이 대기하고 상설부대들이 출동태세를 갖추게 하였으며 련이어 지휘관화상회의라는것을 소집하고 유사시 그 누구의 《급변상황》에 따르는 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을 즉시 시행할데 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비행장과 항만, 미국대사관 등 주요시설에 장갑차와 특공대가 배치되는 등 남조선 전지역에 살벌한 전쟁분위기가 조성되였다.

지어 역적패당은 극히 도발적인 《작전계획 5029》에 따라 미국과 함께 《급변사태》류형을 6가지로 세분화한 행동계획까지 짜놓고 기회를 엿보며 어리석은 체제대결의 허황한 망상을 실현해보려고 획책하였다.

도발이면 이보다 더한 도발이 어디에 있겠는가.

국교도 없고 언어와 피부색이 다른 나라에서도 계획하였던 군사훈련과 연습을 중단하고 조의를 표시하면서 추모기간까지 설정한 례의에 비추어볼 때 역적패당

이 벌린 이러한 전쟁소동이야말로 상실과 비애에 잠겨 몸부림치는 동족의 불상사에 주먹질을 하는것과 같은 불망나니짓이며 인륜을 짓밟고 천륜을 어긴 특대형도발만행이다.

오죽하였으면 남조선 각계층이 《상중에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데가 어디에 있고 초상집을 상대로 비상경보를 발동하는 패륜아가 어디에 있는가.》고 하면서 역적패당을 단죄하였겠는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역도가 감히 그 누구의 《도발가능성》과 《강력한 대응》을 운운한것은 북남관계파탄에 대한 내외여론을 오도하고 제놈의 책임을 회피하려는데서 나온 교활한 권모술수에 지나지 않으며 공화국의 천백배의 복수전에 눈알이 뒤집혀진자의 히스

테리적인 호전광기이다.

리명박역적패당이 《철통같은 안보태세》요 뭐요 하면서 제아무리 허장성세를 부려봐도 그것은 한갖 이소프우화에 나오는 사자가죽을 뒤집어쓴 하늘소 울음소리에 불과하다.

남조선괴뢰군부의 현 실태가 이를 증명해준다.

지금 남조선괴뢰군의 전투도덕적사기와 규률은 매우 문란한 상태에 처해있다.

매일과 같이 군무리탈자가 나타나고 심한 구타와 가혹행위에 의한 자살사건이 만연되고있는것이 오늘 괴뢰군부가 처한 현 실태이다.

올해 1월 14일에 철원군에서 괴뢰륙군의 34살 난 사병이 목을 매달고 숨진채

로 발견되였다고 한다.

언제인가는 황인성이라는 사병이 괴뢰군에 입대한지 다섯달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쓴 일기에는 그의 처절했던 괴뢰군생활이 고스란히 기록되여있었다고 한다.

일기에서 그는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였다.

《엄마, 군대는 나를 위한 맞춤 지옥이예요.》(《한국경제》 2011년 2월 7일 참조)

이러한 사실은 구타와 강권에 의하여서만 움직여지는 괴뢰군내부의 지옥같은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

하기에 지난해 《문화일보》(2011년 6월 8일)는 자살이 만연된 군실태에 대하여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해마다

평균 126명의 군장병이 숨지고 이가운데 75명씩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것으로 나타났다. 3일마다 1명의 장병이 숨지고 5일에 1명은 자살로 사망하는셈이다.》라고 하면서 해마다 평균 75명가량이 자살로 사망했다고 개탄하였다.

이를 두고 남조선언론들은 리명박《정권》이 《구타유발형 자살군대》를 육성한다고 조소하고있다.

이외에도 괴뢰군부내에서 성추행사건, 뢰물사건을 비롯한 각종 부정부패현상들과 불량음식납입과 무모한 훈련에 의한 여러가지 사고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군기가 심히 문란한 상태에 놓여있다.

괴뢰군의 전투기술기재상태도 매우 한심한 수준에 있다고 한다.

자료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괴뢰

들이 수억US$의 막대한 자금을 들인 주요전투장비들가운데서 이미 도입된 주력땅크인 《K-1》과 그 개량형인 《K-1A1》에서는 포신파렬과 기름류출로 인한 화재사고, 변속기불량으로 인한 기관고장이 계속 일어나고있으며 신형땅크라고 하는 《K-2》(흑표) 역시 기관 및 변속기결함이 심각하여 2012년에 실전배치하려던 계획을 연기하였다고 한다.

또한 《K-21》수륙량용전투장갑차는 자동변속기와 배수장치 등의 결함으로 도하훈련도중에 물속에 가라앉군 하여 설계를 다시 검토하고있으며 《K-9》자행포에서도 설계상결함으로 유압기관계통에 구멍이 생겨 피스톤이 마모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있는 상태이다.

《K-11》공중폭발복합형보총은 대량생산에 들어갔지만 각종 결함으로 하여 생산량의 40%가 오작품으로 판정되였으며 최신유도탄고속정 《한상국》호(440t)는 조금만 속도를 높여도 갈 지자로 움직여 그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생산과 실전배치를 중단하고 일부 장비들을 회수하고있다고 한다.

범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는 하루강아지라고 정신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군사기술적으로 무맥한 이런 오합지졸들의 무리를 거느리고 《철통같은 안보태세》와 《대응》을 떠드는 리명박역도야말로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다.

겉과 속통까지 동족에 대한 극단적인 적의와 대결광기가 꽉 들어찬 이런 병적인 호전광들에게는 오직 무자비한 징벌

만이 명약이다.

불을 즐기는자들이 갈 길은 명백하다.

리명박역적패당은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받으며 제가 피운 화약내에 질식되여 비참한 운명을 고하고야말것이다.

허황한 개꿈

리명박역도가 이번 《신년국정특별연설》이라는데서 《핵관련 활동중지》니 뭐니 하면서 북의 자위적억제력을 시비질해나서고 《핵활동중지》를 걸고 주제넘은 《지원》을 뇌까린것 역시 현실을 모르는 저능아의 발상이 아닐수 없다.

북은 이미 세상이 공인하는 당당한 핵보유국이다.

핵보유국으로서 자위적인 핵활동을 하는것은 지극히 정당하며 그 누가 가타부타 론할 여지조차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리명박역적패당은 지난 시기는 물론 오늘에 와서까지 북의 정상적인 핵활동을 사사건건 비방하면서 공화국의 핵보유국지위를 한사코 부인해나서고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북은 지난 시기 두차례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세계에 민족의 존엄과 위력을 힘있게 떨치였을뿐만아니라 이어 우라니움농축시설을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공화국의 최첨단핵관련 기술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여러 나라의 수많은 핵전문가들과 관련기관성원들이 공화국의 핵기술에 대하여 놀라와하면서 감탄을 금

치 못하였다.

결국 북의 핵보유에 대하여 좀처럼 인정하려고 하지 않던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속에서도 공화국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흐름이 주축을 이루게 되였다.

2009년에 당시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도 공화국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미국내에서도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남조선출판물 《머니투데이》(2012년 1월 13일)는 《실제로 미국이 북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려는것이 아니냐고 보는 시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2010년 미국국가정보국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의 매튜 버로우 분석국장은 <북이 핵무기를 제조할 력량은 있지만

핵무기보유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핵무기제조기술자체를 인정한바 있다. 이보다 앞서 2009년 2월 당시 리언 파네타 미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는 2006년 10월에 있었던 북 핵실험에 대해 <핵장치폭발실험이 아니라 핵무기폭발실험>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2008년 11월 발표된 NIC 보고서에서는 북을 아예 <핵무기보유국>으로 명시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라고 서술하였다.

오늘 핵보유국으로서의 공화국의 지위는 날이 갈수록 더욱 공고해지고있다.

이에 대해 올해 1월 12일 《련합뉴스》는 군축관련 비정부기구(NGO)인 핵위협방지구상(NTI)이 11일 공화국을 핵무기무장국가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주민보》(2012년 1월 14일)는 《북은 핵위협방지구상(NTI)이 공인한 6대 <공인 핵보유국>》이라는 부제목을 달고 《세계적인 군축기구인 핵위협방지구상(NTI)이 1월 11일 북을 9대 핵보유국에 포함시킨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 현재까지 국제사회가 인정해오고있는 핵보유국은 총 8개국이다. 국제사회는 미국과 로씨야,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에 대해서는 <공인 핵보유국>으로 그리고 인디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3개국에 대해서는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것으로 인정하는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분류하고있다. NTI가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 하는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국제사회를 충격속으로 몰아가는것으로 된다. NTI보고서

는 더구나 북을 <비공인 핵보유국>이 아니라 <공인 핵보유국>으로 분류하고있다. 북이 세계 6대 공인 핵보유국으로 된것이다.》라고 평하였다.

계속하여 글은 《미국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은것은 북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라는 부제밑에 이렇게 썼다.

《그동안 미국은 북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아왔다. …

그러나 현실은 북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나 다름이 없다는것을 수도 없이 보여주어왔다. 북은 2006년과 2009년 두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했다. 지금에 와서 이에 손사래를 치는 나라는 없다. 북은 이어 2010년 세계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트 해커박

사를 녕변 핵단지로 불러들여서는 <초현대식>우라니움농축프로그람시설을 과감하게 공개했다. 해커박사가 충격으로 비틀거릴 때 세계는 뒤로 자빠질번 한 충격을 경험해야 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당연한 일이다.

북은 그 누가 인정한다고 해서 핵보유국이라고 자부한것도 아니고 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따라다니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구걸한것도 아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공화국은 제힘으로 존엄높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차지하였고 이는 민족의 자랑으로 반만년민족사에 당당한 한페지를 기록하였던것이다.

지난 기간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집이 터지지 않은것은 전적으로 공화국의 평화애호적노력과 막강한 전쟁억제력

이 있기때문이다.

지나온 력사가 이를 명백히 확증해준다.

1950년대 후반기 일본에서 반핵운동이 고조되여 친미정권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자 미국은 일본에 배비하였던 핵무기들을 남조선에 옮겨놓았다. 1957년에 미국의 첫 전술핵무기들이 일본으로부터 남조선에 반입, 배비되였다. 결국 미국은 일본을 《비핵화》하는 대가로 조선반도를 핵화하였던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배비는 부단히 증대되여 1970년대 중엽에는 그 수가 1 000여개를 넘어섰다.

이뿐아니라 미국은 1960년대말부터 남조선에 배비한 핵무기를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실지 사용하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음으로써 조선반도에 핵참화의 불길이 너울거리게 하였다. 1969년 《포커스 레티너》작전으로 시작된 미국남조선합동핵전쟁연습은 그 이후 《프리덤 볼트》, 《팀 스피리트》, 《련합전시증원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장장 40여년동안 매해 끊임없이 감행되여왔다.

정세분석가들이 조선반도에서 지금까지 핵전쟁이 터지지 않은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고 하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전후에 태여난 세대들이 남조선에 실전배비된 미국핵무기의 과녁으로 되여 핵화약내를 맡으며 자라난것이 조선반도의 엄연한 핵현실이며 이러한 민족참화

의 핵전쟁연습에 해마다 참가하여 구복을 채운것이 다름아닌 력대 남조선집권세력들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리명박역도가 민족을 구원하고 인류를 살리는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활동에 대하여 시비중상한것은 정세변화도 관망할줄 모르는 친미사대분자로서의 역도의 반민족적정체를 여지없이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자주민보》(2012년 1월 14일)는 《일각에서 리명박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핵문제를 언급한것을 두고 북을 모를뿐만아니라 격동적으로 진행되는 정세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있는 리명박정부에게서 필연적으로 발생될수밖에 없는 <리명박식>의 저렬한 정치이자

정치적패착으로 보는것은 일리있는 견해로 된다.》라고 전하였다.

리명박역도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는 동족의 핵억제력을 걸고들면서 《지원》따위로 우롱할것이 아니라 외세와 작당하여 북침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저들의 반민족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나 돌이켜보아야 할것이다.

공화국의 강위력한 핵억제력은 반만년민족사의 크나큰 재보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위대한 혁명유산이다. 조선반도에서 외세와 야합한 리명박역도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북은 한순간도 핵억제력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더 강화해나갈것이다.

공화국이 선군의 기치밑에 만난을 헤

치며 마련한 귀중한 혁명유산을 그 무슨 《지원》따위로 흥정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허황한 개꿈에 불과하다.

리명박역적패당은 그 누구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언제 파멸될지 모를 제 운명부터 걱정하는것이 마땅하다.

준엄한 심판만이 있다

그 무슨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있다.》고 주제넘게 떠들면서 마치도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듯이 너스레를 떤 리명박역도의 추태도 만사람의 조소를 자아내고있다.

공화국의 북남사이의 대화제안들을

제발로 차버리다못해 마지막기회마저 잃어버린 리명박의 처지에서 이제 와서 얼빠진 추파를 던지고있으니 당황망조한 역도의 처지가 참으로 가련하기만 하다.

북에서는 민족의 대국상을 계기로 리명박패당의 반인륜적망동에 대해 경고도 하고 그것이 북남관계에 미칠 돌이킬수 없는 후과에 대해 경종도 울리면서 역적패당에게 마지막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역적패당은 그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천하망종짓으로 차례진 절호의 기회마저 스스로 차던졌다.

그러한 리명박이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고 희떱게 놀아댔으니 이야말로 역적패당의 철면피성을 더욱 드러낼뿐이다.

알다싶이 공화국은 리명박역도가 집권

초기부터 북남관계를 파괴하면서 대결책동에 기승을 부리였지만 소중한 6.15의 흐름을 계속 이어갈 애국의지로부터 극력 자제하며 대화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지난해초만 하여도 공화국은 북남당국사이의 대화를 비롯한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제안하고 그 실현을 위해 성의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리명박역적패당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아량에 등을 돌리고 반통일대결책동에 더우 악랄하게 매달리였다. 역적패당은 북남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공화국에 도전하여 외세와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남북관계를 미국과의 관계속에 다루어나가겠다.》는 외세의존적인 망발을 념불처럼 외워댔다. 동족이 내미는 대

화의 손을 뿌리치고 미국상전을 찾아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통일이 최후의 목표》라는 망언을 서슴없이 늘어놓은 대결광신자가 바로 리명박역도이다.

공화국이 지난 2009년 남조선의 전직 《대통령》사망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로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쉽지 않은 기회도 리명박패당은 체제대결의 흉심으로 차던져버렸다.

당시 북남관계의 엄혹한 정세하에서 특사조의방문단을 서울에 파견한 공화국의 조치는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애국의지의 발현으로서 남조선 각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에 대하여 남조선언론들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

시》, 《전반적인 남북관계진전을 위한 디딤돌 마련》, 《격페된 남북관계에 전환적국면으로 되는 통이 큰 결단》으로 격찬하면서 집권당국이 북남관계전환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리명박역적패당은 거기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원칙고수》와 《기다리는 전략》을 내들고 북침전쟁연습소동에 더욱 광분하는것으로 대답해나섰다.

리명박역도는 저들이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풍지박산냈을뿐만아니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남녘겨레의 성의와 노력도 코코에 막아나서는 죄악도 서슴지 않았다.

금강산관광사업을 파탄시킨것이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공화국은 민족의 명산 금강산을 보고싶어하는 남조선주민들의 소망을 헤아려 지난 2009년 8월 현대그룹회장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관광재개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최고의 수준에서 대범하게 다 풀어주었다. 그러나 리명박집권세력은 북의 동포애적아량을 그 무슨 《내부사정》으로 모독하였는가 하면 《민간합의는 존중할수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이미 다 해결된 《3대조건》이라는것을 또다시 들고나와 관광재개에 2중, 3중의 장애를 조성하였다.

대결광신자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6.15의 옥동자》로 불리우며 겨레에게 통일의 희망을 안겨주던 금강산관광사업은 끝끝내 파탄되였다.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만나는족족

다 차버린 리명박역적패당은 지난해 민족의 대국상을 계기로 천추에 용납 못할 반인륜적, 반민족적죄악을 저지름으로써 마지막기회마저 완전외면하였다.

어찌 이뿐인가.

리명박역도는 올해 1월초 주변나라에까지 가서도 《북을 끊임없이 설득해서 북이 개방하고 국제사회로 나올수 있게 해달라》고 구걸하는 추태를 부렸다.(《파이낸셜뉴스》 2012년 1월 11일 참조)

그런가 하면 괴뢰군의 어느 한 전방부대를 찾아가서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세력이 있는 분단된 나라》라고 떠벌이면서 북이 《도발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철통같이 해야 한다.》, 《도발하면 몇배로 당한다고 생각하면 도발할수 없다.》는 나발을 마구 불어댔다.(《머

니투데이》 2012년 1월 18일 참조)

리명박과 같은 극악한 북남관계파괴자가 감히 머리를 쳐들고 《기회의 창》이니 뭐니 하는 주제넘은 넉두리를 늘어놓았으니 이런 얼토당토않은 궤변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게다가 최근 김태효와 같은 악질강경파이고 북남관계와 북남대화를 파탄시킨 주범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으로 들여앉혔다. 이것은 이른바 《기회의 창》뒤에 숨겨진 리명박의 더러운 흉심, 북과 끝까지 엇서나가겠다는 대결흑심을 집중적으로 드러낸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은 리명박역도가 《신년국정특별연설》을 한답시고 나서서 왈가왈부한것 자체가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악랄한 정치적도발이며 북남관계를 대결과 전쟁

의 극단에로 끌고가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라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다.

하기에 남조선의 야당들은 역도의 연설이라는것이 끝나기 바쁘게 성명을 발표하여 리명박역적을 준렬히 단죄규탄하였던것이다.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역도의 연설을 두고 《일방통행식 일장연설이였다.》고 하면서 북의 일방적변화만을 촉구하는 관성적태도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놓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있다고 그루를 박아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오늘 신년연설에서 또다시 <선 북핵페기>, <도발시 강력대응> 등 이미 파탄난 대북강경책을

고수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에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응하겠다는 그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평했다. 계속하여 그는 임기 마지막해까지도 조선반도 긴장완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겠다는 리명박의 독단과 반통일의지에 통탄하지 않을수 없다면서 《올해 말 정권교체 정국을 앞두고 파탄난 남북관계를 차기정권에게 넘겨주겠다는 놀부심보외 다른것이 아니다.》라고 호되게 비판했다.(《통일뉴스》 2012년 1월 2일 참조)

이제 리명박패당에게 남은것은 민족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얼마전 남조선불교계에서 《운동권스님》으로 불리우고있는 명진스님(본명 한기준)이 리명박역도를 쥐에 비유한 책을

발간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명진스님은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라는 책의 부제목을 《서이독경》(쥐귀에 경읽기)이라고 달고 리명박 역도를 《말을 제일 안듣고 말썽만 부리는 쥐》, 《시끄럽고 쌀이나 축내는 쥐》, 《국산쥐가 아닌 미국쥐》라고 하면서 《쥐구멍에 물이나 들어가라.》고 썼다.

또한 역도를 《전두환보다 나쁜 최악의 대통령》, 《전과자에 사기군》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말은 서푼짜리 동전만 못하다.》, 《퇴임후 남대문에서 빈대떡장사나 해라.》, 《몰렴치, 파렴치, 후안무치의 3치가 리명박의 정신이다.》, 《국가지도자가 거짓말이나 하는 사회는 망해야 한다.》, 《퇴임후 리명박은 내곡동 주택이 아니라 통곡동으로 갈것이다.》

라고 비난하였다.

남조선에서 리명박역도를 《쥐》로 묘사하면서 《쥐를 박멸하자!》는 내용의 만화와 풍자구호들이 나온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책으로 출판되여 나오기는 처음이라고 한다.

책은 나오자마자 사회각계의 커다란 인기를 얻고있으며 청와대것들은 내심으로는 몹시 불쾌해하면서도 여기에 맞대응하는 경우 책의 인기가 더욱 올라갈가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느니, 독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것이라느니 하면서 끙끙 속앓이만 하고있다.

명진스님뿐아니라 전 조계종 총무원장 법륜스님은 남조선의 전지역을 순회하면서 리명박역도가 집권한 이후 민생위기, 민주주의위기, 북남관계위기에 빠

져들었다고 하면서 선거에서 《정권》을 잘 뽑아야 위기를 해소할수 있다고 설교하고있으며 전 여의도연구소 소장 윤여준, 전《한나라당》 원내대표 김무성 등 여러 인물들도 리명박역도를 집권여당을 위기에 몰아넣은 《오적》이라고 하면서 현 사태는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할 지경이라고 비난하였다고 한다.

연세대학교 교수 김동길은 자기의 홈페지에 리명박역도는 북남사이에 무슨 일이 터지면 맨 먼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이나 일본으로 도망갈 인물이라고 하였는가 하면 시위현장들에서는 리명박역도의 관을 메고 행진하며 역도를 화형식에 처하는 행사까지 벌어지고있다. 이것은 역도가 이미 산송장이 되였으며 그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

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제반 사실은 리명박역도가 말그대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하여 허우적거리고있으며 《식물대통령》, 산송장으로 전락된 역도의 운명이 끝장날 날도 멀지 않았다는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다.

력사는 인륜을 짓밟고 천륜을 어긴 잔인무도한 야수들인 리명박역적패당에게 이미 사형선고를 내렸다.

리명박에게 더는 기회가 없다!

더는 기회가 없다

집 필	**한 남 철**
장 정	박 봉 혁
교 정	리 경 순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1(2012)년 2월 5일
발 행	주체101(2012)년 2월 10일

ㄱ—1103ㄷ